

설레이는 사랑이 시작됩니다



두근 두근
그때 언제만 떠오르고 그때 목소리만 아픈가라는
사랑의 시작이 내 마음에 와서 머물러 두드립니다



참부모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청심 주일학교에 다니는 김동건
이라고 합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주일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참부모님의 생애, 노정에
대하여 배우고 있어요. 배울 때마다 매번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매번 접하다보니 참부모님의 대한 존경심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언제나 존경하는
참부모님! 앞으로도 오래 건강하게 사시고 좋은 말씀을
여러 사람들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으로도 아무
달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어머니, 아버
지를 축복 결혼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축복 결혼시켜주셔서 제가 동일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자라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참부모님을 생각하며 헌금을 하고 있어요.
언제나 동일교회 수구님들을 지켜주시고 걱정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성실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장교 편지를 잘 쓰신 안용암지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학교에 다니는 5학년 김동건
2016. 1. 8